



올해 사과 생육 상황은 양호

< 보도 주요 내용 >

4월 19일(금)자 KBS 뉴스에서 「올해도 금값 사과?...“개화량 감소”에서 “열매를 맺어야 할 꽃이 적게 피어 올해 생산량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” 등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.

<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>

현재 사과나무의 꽃눈 수는 과실 생산량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.

국내에서 재배되는 대부분의 사과나무는 1그루 당 300~500개의 꽃눈이 생기며, 사과재배 농가는 상품성 향상을 위해 적화(摘花) 및 적과(摘果)를 통해 100~150개 내외의 과실을 남겨서 재배합니다. 아울러 현재까지의 기상 및 생육상황을 고려할 때 올해 사과 생산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.

농촌진흥청 관계자에 따르면, “전국적으로 개화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, 일부 지역에 따라 개화량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농가들이 적화 및 적과를 통해 결실량을 조절하도록 지도하고 있다”고 설명하였습니다.

아울러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수확기까지 가뭄, 탄저병 등 생육단계별 위험요소를 철저히 관리해나갈 계획입니다.

담당 부서	유통소비정책관 원예경영과	책임자	과 장	김정락 (044-201-2251)
		담당자	사무관	장 미 (044-201-2254)